

小片은 下端으로 나려움을 따라서 若干 擴大되었는데 右半部가 缺失되었으나 左半部는 거의 完全하다. 彫法이 左·右對稱의 方式을 따르고 있음에서 圖面과같이 復元시킬 수 있다. 그리하여 如來立像의 下半身으로서 兩足を 喪失한 佛身片으로 推定되었다. 法衣는 腹部中央에서 弧線을 그리며 垂下되어 그 最下端의 폭이 넓은 圓弧를 남기고 있으며 身部兩側을 따라 길게 垂下된 右側의 衣端이 남아 있다. 또 裙衣는 이 大衣 밑으로 兩足上 가까이 垂下되어서 裙襞의 깊은 刻線을 남기고 있는 바 이 手法은 左側 缺失部分에 남아 있는 刻線 兩條에서 미루어 보더라도 上記한 바와 같이 左·右相稱의 通式을 따르고 造成된 것이 틀림 없다. 石質도 柔軟하지만 彫線은 銳利하고 深刻되었으며 衣紋은 刻面에 부드러운 圓味를 내어서 寫實的인 手法을 따르고 있는 바 이같은 點은 특히 中央 大衣의 圓弧彫法에서 顯著하다. 即 斷面이 鈍角을 이루고 다시 두께를 表示하기 위하여 中央稜線에 이르러 高彫의 手法을 따르고 있다. 後面은 橫線으로 上·下로 區分되었는데 上部는 거의 平面에 가까움고 無紋이며 下部에는 衣褶縱線 一條을 남긴 磨損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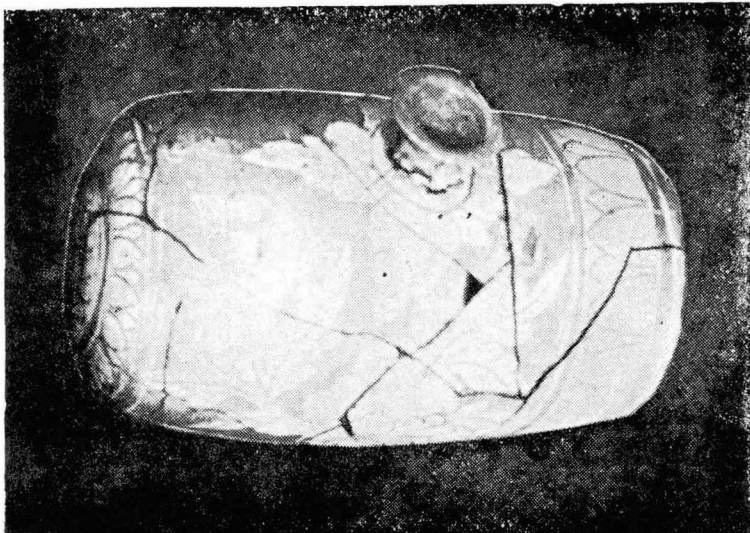
그런데 이 小片에서 注目되어야 할 것은 첫째 當代 如來像의 樣式一部를 表示하고 있어 國內에 現存하는 遺例(例컨대 瑞山磨崖如來立像 三軀나 扶餘의 金銅立像(破)兩例) 또는 日本에 傳來하는 金銅像(例컨대 四十八體佛中の 佛形立像) 등과 比較考察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로는 이 小片이 彩色의 痕跡을 뚜렷이 남기고 있어서 稀貴한 資料로 보아야 할 것이다. 現在는 下端部에 紫色의 彩料(靚)를 가장 濃厚하게 남기고 있으며 其外部分에도 엷은 紫灰色을 보이고 있다. 이 紫色系의 彩料가 原色을 保有하는 것인지 變色된 것인지 또는 單複色의 與否도 더욱 究明되어야 할 것이다. 이같은 滑石製石像의 遺品은 日政期에도 數例 發見된 바 있었는데 그 中에서도 一九四三年頃 藤澤一夫氏에 의하여 收拾된 滑石製立像片(胸部以下 扶搏陳列)은 優品으로서 그 表面에 朱色의 痕跡을 남기고 있는 것은 이 斷片和 더불어 注意되어야 할 것이다.

〔註〕 林泉氏에 의하면 下端의 紫色은 臍脂이며 其他 白群綠靑이 使用되었다고 한다.

## 光州 忠孝洞 高麗陶窯址 調査

林 泉

一九六一年 八月 光州東西兩塔 解體補修工事의 監督業務를 命받아 現地에 出張하였다가 全南文化財保存委員 魯錫經氏가 蒐集한 破片을 보고 忠孝洞에서 高麗陶窯址가 發見되었음을 알았다. 九月 八日 機會가 있어 遺址를 踏査할 수 있었으므로 그 經緯를 簡單히 紹介코자 한다. 光州市에서 五〇여 리 떨어진 無等山西麓에 忠孝洞이 있는 바 일대는 野山이 連接하여 있고 골짜기에는 農家가 있으며 한쪽으로는 山田이 넓적이 깔려 있다. 陶窯址는 이 附近에 竹林과 雜木속에 숨겨진 채 丘陵을 따라 長形으로 散在하고 있었다. 檢出된 陶窯址는 六個座인데서



로相當한 間隔을 두고 不規則하게 놓여 있다. 그중 마을에 隣接하여 있는 窯址에는 去般 二年間이나 雜人이 多數 出入하여 相當量の 破片을 掘取하였다고 하나 大端한 被害를 입지는 않았다고 보여진다. (魯錫經氏가 忠孝國民學校 申亨模氏의 盡力으로 進行되었다 한다)

忠孝洞一帶가 陶磁器工場과 關聯이 있었던 듯 遺物이 散在하고 있는데 이로 미루어 보면 盛時에는 그 規模가 相當하였으리라 생각된다. 여기서 採取된 破片群은 前記 魯氏가 相當數 保管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중에는 龍文을 象嵌한 花瓶, 蓮華文에 靑柳를 細工한 무늬의 瓶도 있고 銘文이 있는 것도 있다고 한다.

여기 실린 사진의 장군도 魯氏 保管品 中の 하나인데 第三窯址에서 出土되었다고 한다. 全面에 큼직한 牡丹文을 놓은 이 장군은 좌우 마구리에 蓮瓣文을 갖고 있다. 數片으로 破損은 되었으나 쪽을 많이 잃지 않아 復元이 可能하다. 採集携帶해 온 破片中에는 애벌굽기(초구이)를 한 것에 象嵌을 한 것도 있는데 白土만을 嵌入한 印花文과 點珠文의 鉢도 靑磁象嵌의 末期的인 樣式이 나타나 있다.

充分한 期間 調査할 수 없었기 때문에 여기서도 窯址가 發見되었다는 程度의 情報만을 整理함에 끝나고 말았으나 出土破片이 高麗象嵌靑磁와 粉靑磁器를 同時에 보이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研究資料로서는 貴重하다는 印象을 받았다.

附近에서 產出되는 粘土의 質과 窯形을 窺明치 못하였음으로 무어라 斷言하기는 어려우나 이 方向의 專門家가 細密히 現地를 踏查하면 보다 더 重要な 資料가 入手되리라 하고 確信한다.

### 靑磁果盤

孟 仁 在

一 一種의 大型접시라고도 할 수 있는 甞반인데 흔한 접시나 鉢類에서는 甞

아 볼 수 없는 器形이며 近來 全南地方에서 出來한 것으로 傳한다. 狀況은 알 수 없으나 古墳出土 品임에 틀림 없을 것이다.

二 側面外觀은 5cm

높이의 뚜렷한 운두가 빙글 돌고 있는 데 운두의 전이나 운두 밑에 불은 바닥(형식적인 굴)의 各外轉 內轉이 은근해서 S字形에 가까운 曲線을 이루고 있다. 外觀上의 變化는 이 程度일 뿐이나 지름이 一六·五cm라는 그릇의 크기와 운두 上下의 形式은 단번에 가리질 한 것 같지 않은 工程을 말해주는 同時에 自然의 悠然性과 通하는 멋을 들어 내고 있다.

운두面의 釉層은 胎土에 잔잔히 密着한 淺碧(粉靑)釉이며 바닥의 그것은 陰刻文樣과 釉裂도 껏드러진 多少의 濃淡變化가 있는 透明碧釉이다. 釉調에 가장 큰 변화를 일으킨 곳은 바닥 둘레인데 여기에는 운두와 바닥의 높이는 데서 흘러내린 目測 깊이 〇·三—〇·四cm 以上 二—三cm 넓이의 碧綠釉가 深淵처럼 돌고 있다. 이 碧綠釉는 바로 徐兢이 반했던 「翡色」에 틀림 없을 것이며 陶工의 業인 듯 靑麗하게 凝結되어 있다(同視한 鄭永鎬氏도 筆者와 번갈아 感嘆하였다).

